

위계 세워 수행전통 맥 잇는다

16년만에 열린 조계종 비구니회 총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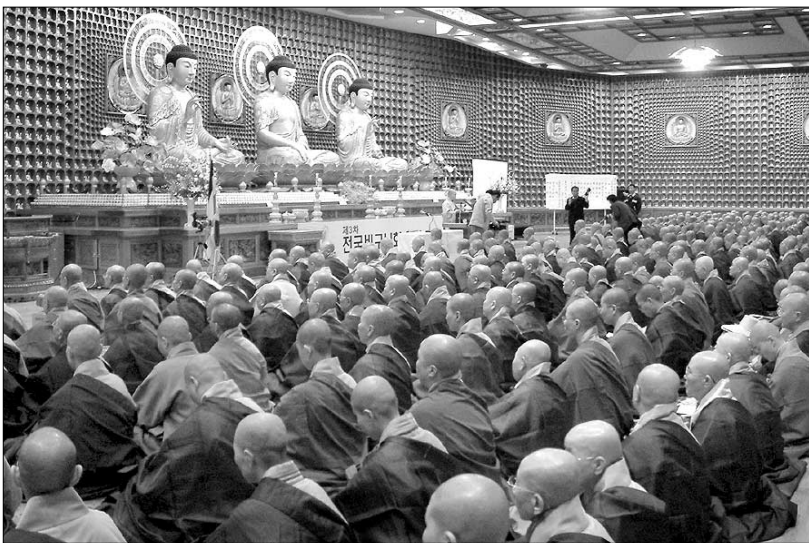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비구니 원로회의 구성을 결의하는 등 500여명의 비구니들이 모인 가운데 16년 만에 열린 총회를 성료했다.

비구니회 3월 30일 서울 서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범용사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를 비롯한 회칙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의 안건으로는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를 위한 회칙개정 △제7대 임원인준 △비구니부 신설에 대한 입장발표 △한국비구니의 수행전통 포럼 개최(10월) 등이 상정됐다. 전국 각 지회에서 올라온 비구니 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지난 1989년에 이어 16년 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원로의원 추대 결의
이번 정점으로 부각됐던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 건은 법랍 50세, 세랍 75세 이상으로 최고의 수행복역을 겸비한 '제민' '청해' '봉래' '삼현' '법기' '의선' 등 각 문중 스님들을 중심으로 '원로추대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추대위원회는 운영위원장단(회장단 및 각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7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위원회가 원로 후보의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 인준을 거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로의원

추대를 위한 각 문중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의 의장을 맡은 명우 스님(수석 부회장)은 "비구니 원로회의는 한국비구니의 사표가 될 최고의 수행승들만을 엄선할 예정"이라고 밝혀, 문중 안배뿐만 아니라 은처(隱處) 수행승을 아우르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원로회의 구성 결정으로 일부 권한이 중복되는 회칙 제8조의 총재 직제는 삭제하기로 했다.

●비구니부 신설에 힘 모으기로
제166차 임시총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비구니부 신설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운영위원장으로서 추대된 수현 스님은 "총회의원(비구24·비구니10) 34명의 서명을 받아 비구니부 신설문제를 총회에 상정은 했지만 대부분 비구 스님들의 무관심으로 정식으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고 "비구니 스님들이 지역 총회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과 관심"을 호소했다.
총회의원 윤달 스님도 "비구니부 신설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7000여 종단 비구니들을 위한 총회개발, 승종진자, 사회적 역할확대, 교육·포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3월 30일 열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3회 정기총회에는 전국에서 500여 스님들이 동참했다.

비구니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해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수행전통 포럼 개최
한국비구니의 수행전통을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 포럼을 10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기획실장 혜원 스님은 "근·현대 비구니들의 수행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 출가자들의 모범적 수행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행전통 포럼은 강맥, 선맥, 계맥을 이은 스님이나 주역 범백 단청 복식 요리 사

경 등 각 분야에서 특징적인 활약을 보인 비구니 스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밖에 총회는 제7대 임원단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현, 부위원장 보각 재회 해운 성종 스님을 비롯한 12개 지회장들을 인준했다. 또 일부 스님들은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지원과 관련, 비구니사찰이 소외된대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총무원은 승려노후복지시설 10곳을 모두 분사 위주로 선정해 비구니 스님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글·사진=조용수 기자

북관대첩비 北 함북 길주에 복원

남북공동, 日에 반환 요청

북관대첩비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 복원된다.

북관대첩비 민족운동중앙회 남측 대표인 조선 스님과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은 3월 28일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현재 아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관대첩비를 북한으로 옮겨와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복원과 관련한 행사를 열 예정이며, 조선 스님은 일본 당국에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선 스님은 "남북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빠르면 4월 중에도 북관대첩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정문부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1707년 함북 길주군 임명 고을에 세워진 북관대첩비는 1905년 러일전쟁때 일제가 약탈해가 아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왔다.

한편, 조계종도 3월 29일 조불평교의 회담을 통해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남북공동연행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4월 중순 이후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도 3월 27일 4월로 예정된 법당 스님의 방북 일정을 협의했으며, 천태종은 4월 1~3일까지 영통사 낙성사 등 대북교류사업 전반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철주 기자

“보살의 원력으로 살자”

쌍계사·통도사·대흥사 등 보살계 수계법회

4월을 맞아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살계 수계 법회와 불사를 봉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강산에 육조스님의 머리를 모셔 선종을 드날리고 있는 하동 쌍계사주지 우담는 4월 13~15일 육조해능 스님을 기리기 위한 '제30회 쌍계사 보살계·정대불사·육조봉천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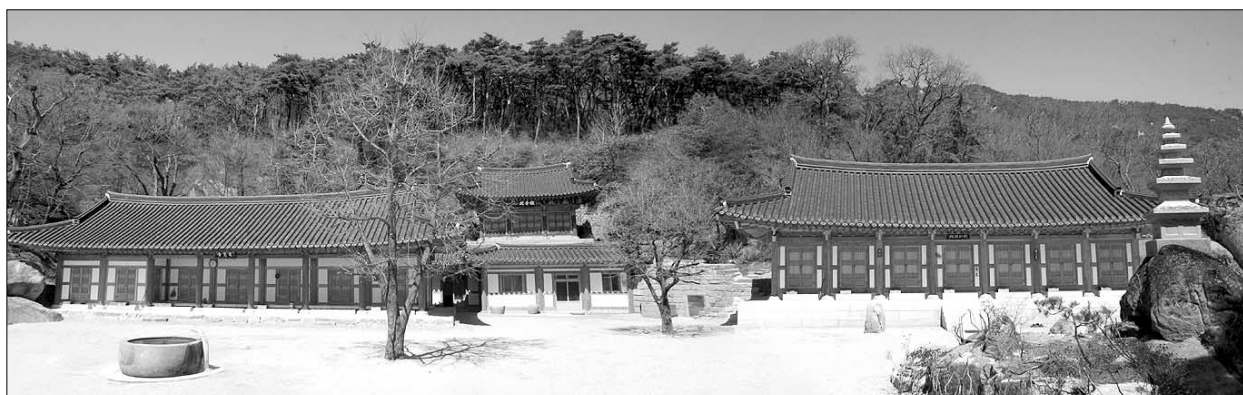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계사로 진행되는 보살계는 4월 13일 오전 10시 쌍계사 금강계단에서의 입제식을 시작으로 4월 14일 오후 8시에는 육조봉천회가, 4월 15일 오전 8시에는 장경정대불사가 각각 개최된다.

국내최대인원이 참석해 계를 받기로 유명한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의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는 4월 13~15일 금강계단에서 봉행된다. 계사는 해남 스님.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는 4월 8일 조실 천운 스님을 계사로 '호국성사 서산대사 탄신대사 보살계 법회'를 마련한다. 보살계 법회는 '서산대사 485주년 탄신대제'와 함께 봉행될 예정이다.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송광사(주지 영조)도 각각 4월 21~23일과 5월 4~5일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경허·만공 스님의 선풍이 살아있는 정혜사 능인선원이 중창불사를 마치고 4월 15일 재개원한다.

사진제공=수덕사

수덕사 '정혜사 능인선원' 재개원

만공 스님 탄생 134주년 맞아
근현대 한국선불교의 꽃을 피운 경허 만공 스님 등을 배출했던 수덕사의 '정혜사 능인선원' 이 다시 문을 연다.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은 오는 4월 15일 '만공대선사 탄신 134주년'을 맞아 정혜사 능인선원 중창불사 재개원과 함께 만공 스님

탄신대제, 보살계 수계법회 등을 개최한다.
능인선원은 조선 고종 32년 최초 설립된 이후 근현대 한국 선원의 전통과 수행가풍을 전승한 선원으로, 경허·만공 스님을 시작으로 해암 금오 고봉 금봉 벽초 효봉 스님을 비롯, 최근에는 송담 진제 원담 스님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배출한 곳이다.

능인선원은 이를 위해 25명 이상의 수행자를 수용할 수 있는 39평 규모의 선방과 요사채 등을 마련했다. 또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지원하는 한다.

한편 4월 15일 오전 8시 30분에 열리는 '만공대선사 탄신 134주년 탄신대제'는 거불, 진영과 헌향 한다. 만공탑 헌향, 능인선원 종사영반 시식 등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는 수덕사 대웅전에서 스님 및 신도 2천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보살계 수계대회도 봉행된다. (041)337-6665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인도에 동산아카데미 설립

동산불교대, 초·중·고 교육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이 인도 유피주 수라바스터 기원장사 천축선원(주지 대인) 부지에 '기원장사 동산아카데미'를 설립한다.

3월 21일부터 28일 까지 인도 현지를 방문한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천축선원 부지 2000평을 이용해 인근 주민들의 초·중·고등 교육을 책임질 동산아카데미를 건립하기로 대인 스님과 합의했다.

동산불교대학은 1차로 10평 규모 교실 10칸을 건설, 초등학교부터 개원한 뒤 영어·한국어·IT 분야까지 확대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에 현지 주민들이 보건소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센터를 개설해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동산불교대학과 기원장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 사업은 3년 전부터 추진돼, 이미 '한국 보리수 소사이티'라는 교육법정도 설립된 상태다.
김강진 기자

목탁소리

지난 3월 29일, 한국대학신문이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총장의 프로필을 조사·발표했다. 조사대상인 180여명의 총장 중 자신의 종교가 불교라고 답한 사람은 15%에 불과한 26명이었다. 이 밖에 개신교가 79명, 가톨릭이 27명, 종교가 없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 50여명이었다.

물론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내적인 자기수행이라 여겨 공개적인 자리에서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 성향이 짙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이번 설문 조사가 '총장'이라는 공적 직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더욱 종교를 밝히기 꺼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을 감안하더라도, 조사결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더구나 '불자 대학총장' 중 중립대학의 총장을 비롯해 박원훈 중앙대 총장, 성기태 충북대 총장 등을 제외하곤 불교계 단체 활동이나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이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것도 문제다. 불교계가 '지식인 불교' '지식인 포교'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지식인 양성'에 열마나 무관심했는지

답을 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지식인에 대한 포교는 단순한 '세(佛) 불리기' 차원을 넘어, 이들에게 든든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회 갈등과 분열의 해결책을 찾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제 '불자 지식인 양성'이 구호가 아닌 실천이 되어야 할 때다.
여수령 기자

불자 지식인 양성 시급

韓國禪佛教曹溪宗入宗公告

韓國禪佛教曹溪宗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하고, 고려국사 보제존자 나옹화상을 종조로 개창한 한국 선불교의 정통 종단으로, 선택 진작과 불교 사회발전에 동참할 사부대중계 입증을 권고 하오니 무무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대상

- 승가: 본종 혹은 타종단의 계단에서 득도계를 수지하고, 소정의 교육을 거쳐 승적을 취득한 승려(입증서 서류 및 면접 심사)
- 재가: 본종의 종지,종풍에 동의하고,선불교 발전에 동참할 분 (일정한 교육 이수후 본종의 재가승으로 승적 취득 가능)
- 연락처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 덕인사
부산시 진구 당감 4동 751-16번지
전화 : 051)897-8078, 903-8078
팩스 : 051)896-9077

韓國禪佛教曹溪宗 總務院長 覺圓 慧空 合掌

이것이 명품이다!

현종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흥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생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통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매일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세요.

토종 오가피

현종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종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유망주 손초롱 선수의 4명으로 출범한 현종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국산토종오가피 목욕분양 및 상담 ※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종F&B HYUN PUNG F&B CO., LTD.